

牛乳의 길(밀크로드)을 따라서

(3회)

齊藤邦樹(글)
張德基(번역)

4. 印度의 酪農

정작「印度 牛乳業事情視察」이라고 마음에 새긴 旅行이기 때문에 우선은 印度의 牛乳業事情을 紹介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먼저 印度의 酪農을 지탱하는 「물소의 大牧場」이야기를 하고저 한다.

實은 델리市에 到着하고 이틀째, 「오늘은 물소농장「Buffalo farm)을 案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現地 案内人의 스케줄이다.

「聖스러운 소」라 숭상하는 印度敎의 나라 印度에는 確實히 소가 많으며 觀光次 돌았던 델리市內 이곳 저곳에 소가 悠悠히 걸어다닌다. 아직 본적이 없는 등에 혹이 달린 새하얀 소들이다.

그리고 새까만 물소들이 收穫이 끝난 밭둑길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것도 보았다.

그렇지만 이들 소와 酪農과는 무슨 關連이 있는 것일까? 우리들의 常識으로 酪農이라 하면 넓은 牧草地에 노는 젓소의 무리가 아니면 상상하기 어렵다 印度에서 버팔로(Buffalo)라는 것은 물소를 말한다. 그 물소의 牧場을 보러 가려는 것이다.

實은 델리市에 到着한 것은 한밤중, 다음날

市內觀光이라는 強行 스케줄에 旅行의 被勞가 겹쳐 물소의 牧場이란 말을 듣고도 若干 실증이났다.

어차피 제대로 젓도 나오지 않는 물소 10頭나 20頭쯤 본것으로 어떻다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라도 「물소 農場(Buffalo farm)」이라고 허풍을 댈것을... 그러나 現地 案内人이 우리들을 爲해서 無理를 해서까지 애써 준 것이라면 그저 理解하면서 그 好意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델리郊外로 한時間半쯤 달렸을까? 11月の 乾燥期에 접어든 印度에서는 이제 모두 收穫이 끝나고 한가로운 田園에는 아무것도 없다.

넓디 넓은 大地가 넓어지기만 할 뿐이다.

이윽고 案内人이 「물소農場에 到着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칸막이로 된 기다란 집 같은 建物이 쪽 늘어서 있다.

「무엇이 農場인가」하고 建物안을 들여다 보고 정말 놀랐다. 시커먼 물소의 엉덩이가 서로 밀고 밀리며 분비면서 쪽 늘어서 있는것이 아닌가? 코를 찌르는 惡臭와 함께 그것은 무엇이라고 形容하기 어려운 異常한 光景이다.

「이것은 참 굉장하군」하며 탄성을 올린다. 처마가 낮은 牛舎에 一列橫隊로 30頭程度, 엉덩이를 이쪽으로 向해서 줄서 있다. 머리를 서로 맞대고 反對便으로 같은 모양으로 30頭程度가 줄서 있고 한가운데에 飼料를 넣는 통이 있다. 목을 쇠사슬로 連結해 놓고 形式은 스탠촌式 牛舎와 같다.

지붕만 있는 牛舎로 入口가 있는곳에 5~6坪의 飼料室과 사람이 사는곳이 한데 붙어 있다. 이런 牛舎가 3間程度의 가운데 뜰(中庭)을 끼고 쪽 늘어서 있다. 牛舎 各棟에는 番號가 붙어 있고 길 兩側에 줄지어 늘어서 있는 牛舎番號의 끝番號가 46으로 되어 있다.

한 牛舎에 50~60頭로 보고 全部 2000頭 以上이 된다고 한다. 果然 큰 물소農場인 것이다. 大部分이 시커먼 물소이지만 約 1割은 普通의 乳牛이다.

버팔로(Buffalo)라고 하면 으레히 西部劇의 들소(野牛)를 상상하지만 印度에서는 물소를 가르치고 다른 소는 카우(cow)이다. 따라서 牛乳도 버팔로 밀크와 카우밀크로 區別해서 부르고 있다. 이 카우쪽은 정말로 種子가 雜多해서 印度 古來의 흰소도 있고 黑白斑의 홀스타인 雜種과 붉은털(赤毛)의 간지種, 그리고 몸집이 작은 저-지라고 生覺되어지는 것등 그야말로 여러가지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물소라고 하면 多少의 것은 나오겠지만 어디까지나 農耕用이라고만 生覺해 왔었는데 이곳에 와보니 바로 專門的인 乳牛로서 飼育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물소에서 都大体 어느程度의 牛乳가 나오

는지 물어 보았더니 아침 5時와 저녁 5時 두 차례 搾乳하여 1日 約10kg程度라고 한다.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서 乳房도 相當이 큰 편이다. 또한 乳脂肪分이 7~8%나 되므로 홀스타인種에 比하면 乳脂肪量이 約 倍나 되는 것이다.

1년에 9~10個月 젖을 짜고 7~8年을 걸러서 6~7마리의 새끼를 낳고 廢牛로서 賣却한다. 成牛 한마리의 價格은 約 5000루우피라고 하니까. 日本 圓貨로 換算하면 約 15萬圓이다. 가난한 印度에서는 相當한 高價의 財産이라 할 수 있다.

물소라고 하면 元來 江이나 연못에서 머리(首)까지 물에 담그고 놓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왔었으나 이곳에 와서 훌륭한 乳牛로서의 能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덧붙여서 말하면 물소에도 두가지 種類가 있어 印度의 以西에 있는것이 “리버 버팔로”이고 東南아시아에서 타이완, 오키나와에 있는 것이 “스왑프 버팔로”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리버 버팔로는 牛乳를 짜고 에집트나 이태리의 시실리섬 附近에서 乳牛로 利用되고 있다.

스왑프 버팔로 쪽은 뿔(角)이 커서 農耕에 使用되고 있으나 어찌서인지 乳用으로는 쓰이지 않는 모양이다.

印度人の 食生活에서 牛乳 및 乳製品은 決코 빠트릴 수 없는 것이지만 酷熱의 나라, 印度의 酪農을 지탱해 나가는 것은 이 물소이다. 젖소라 하면 홀스타인 一辺倒의 日本에서는 상상도 못할 酪農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살림위해 절약하고 건강위해 혼식하자
